

아동복지서비스와 아동안전 변수: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이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김혜성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BK 박사후 연구원)

1. 서론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아동학대 개입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을 채택하여 아동의 안전을 기하고자 노력해왔다.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은 위험사정기법과 문제나 위험 요인과 관련된 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접근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Cameron & Karanamow, 2003; Chauffin et al., 2001; Davison-Arad et al., 2003; Houston & Griffiths, 2001; Gambrell & Slonsky, 2001; Rose, 2000).

위험 요인 서비스 접근은 아동의 학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서비스 욕구를 판정한다. 개입은 위험요인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아동의 안전은 학대 재발생 여부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본다. 학대발생은 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므로 아동복지 시스템이나 경찰과 같은 사회통제 제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아니며 오히려 가치와 도덕적 판단, 불명확성에 근거한 위험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Anglin, 2002; Beck, 1992; Dingwell, 2000; Parton, 1996; Parton et al, 1997; Scourfield, 2003; Turnell & Edwards, 1999).

최근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임파워먼트 중심 접근은 강점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욕구 결정에 주요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의 발생을 내적·외적 억압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와의 파트

너쉽 형성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아동안전 평가의 주요 자원은 클라이언트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되며 클라이언트의 변화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Connolly & Mckenzie, 1999; Dubois & Miley, 1999; Gutierrez et al, 1998; Eppa & Jackson, 2000; Jack, 2001; Lee, 2001).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는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쉽 형성 등을 위해 활발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위험 요인 중심의 서비스 접근과 비교하여 아동의 안전을 성취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또한 부족하다.

기존의 관련 문헌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를 (1) 위험요인 (2) 위험요인에 대응한 서비스 매칭 (3) 경찰의 개입 등으로 정의하였다.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로는 (1)보호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 (2) 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3) 개입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등으로 정의하였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평가에서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에서 주 관심사인 학대 재보고와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에서의 주 관심사인 보호자의 변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학대 재발생 위주의 좁은 아동안전 변수 개념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와 가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이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보다 아동학대 재보고(re-report of abuse and neglect)에 보다 높은 연관성을 보일 것인가?

가설 1: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요소들은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보다 아동학대 재보고와 보다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은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보다 학대와 관련된 보호자의 행동변화와 보다 높은 연관성을 보일 것인가?

가설 2-1.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은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보다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 감소에 보다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은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들보다 보호자의 신체적 학대 감소에 보다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NSCAW) 아동학대신고 사례 표본을 사용한 이차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와 3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보호자와 공공 아동복지사 모두가 조사에 참여한 사례 중에서 1차와 3차 조사에 걸쳐 동일한 보호자이고 공공아동복지사와 접촉이 있었던 548사례를 포함하였다.

3-2. 종속변수

아동안전변수.

아동안전변수는 학대 재보고와 보호자의 학대와 관련된 행동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학대 재보고는 3차 조사에서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수집한 학대 재보고가 있었는가에 대한 유무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보호자의 학대와 관련한 행동은 1차와 3차 사이에 발생한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변화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NSACW는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trauss et al, 1998)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보호자의 자기보고형식으로 수집되었다

3-3. 독립변수

3-3-1.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구성요소

위험요인(공공아동복지사가 보고하는 위험요인 수), 위험요인에 대응한 서비스 매칭(공공아동복지사가 보고한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수), 개입과정에서 경찰 개입 여부 등의 3가지 변수로 구성되었다.

3-3-2.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구성요소

충족되지 않은 욕구(보호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보호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욕구에 해당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도움제공출처는 친척이나 지역사회, 공공아동복지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였음), 개입과정 참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매우 만족함'과 '그 나머지'로 더미변수화) 등의 3가지 변수로 구성되었다.

3-3-3. 복합매칭(congruent match)

공공아동복지사가 보고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자가 보고하는 욕구가 동일하며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경우를 측정하였다.

3-4. 통제변수

보호자의 연령('25세 이하'와 '그 나머지' 로 더미변수화), 보호자 인종('흑인'과 '그 나머지 인종'으로 더미변수화), 아동연령, 학대의 심각도, 푸드 스탬프 수혜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대 재보고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모델 1(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 $\chi^2=51.50$, $p<.000$), 모델 2(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 $\chi^2=55.3$, $p<.000$), 모델 3(양 모델 모두 투입, $\chi^2=60.78$, $p<.000$) 모델 4(양 모델과 복합매칭 변수 투입, $\chi^2=61.06$, $p<.000$)의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요인에 대응한 서비스 매칭' 수가 감소할수록 학대 재보고 발생율이 증가하며($b=-.202$, $p<.05$),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할수록 학대 재보고 발생율이 증가한다 ($b=.080$, $p<.1$ vs $b=-.173$, $p<.01$). 모델 3에서는 '위험요인에 대응한 서비스 매칭'($b=-.181$, $p<.05$) '충족되지 않은 욕구' ($b=.095$, $p<.0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b=-.134$, $p<.05$) 등이 학대 재보고 발생율에 연관성을 보였다. 모델 4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 변화와 관련하여, 모델 1($R^2=.057$, $F=6.448$, $p<.000$), 모델 2($R^2=.083$, $F=9.647$, $p<.000$), 모델 3($R^2=.086$, $F=5.086$, $p<.000$) 모델 4($R^2=.086$, $F=4.952$, $p<.00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학대가 증가된다($\beta=-.132$, $p<.01$). 그러나 보호자가 개입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정서적 학대가 증가된다($\beta=-.118$, $p<.05$).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 구성요소 모두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분석 모델 4개 모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위험요소에 대응한 서비스 매칭' 만이 약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3$, $p<.1$).

본 연구결과 가설 1과 가설 2-1은 부분적으로 지지받았으며, 가설 2-2는 지지받지 못하였다. 위험요인 중심 서비스 접근보다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이 아동안전변수

(학대 재보고와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파워먼트 중심 서비스 접근이 아동안전을 성취하는데 대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 보호자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증가할수록 학대 재보고 확률이 증가하며 정서적 학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과는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수가 증가할수록 학대 재보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과 ‘보호자의 개입과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적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과제를 남겨주었다. 또한 ‘위험요인과 서비스 매칭’ 수가 증가할수록 학대 재보고 확률이 감소되며 신체적 학대 감소에도 약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먼트 중심 접근 적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위험요인 중심 접근을 배제하기보다는 보완·발전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보호자가 인식하는 욕구와 아동안전 변수와의 상관성을 밝혀 보호자의 욕구를 개입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체적 학대에 비해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Anglin, J. P. (2002). Risk, well-being, and paramountcy in child protection: The need for transformation. *Child & Youth Care Forums*, 31(4), 233-255.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Cameron, G., & Karananow, J. (2003). The nature and effectiveness of program models for adolescents at risk of entering the formal child protections system. *Child Welfare*, 132(4), 443-474.
- Chauffin, M., Bonner, B. L., & Hill, R. F. (2001). Family preservation and family support programs: Child maltreatment outcomes across client risk levels and program types. *Child abuse & Neglect*, 25, 1269-1289.
- Connolly, M., & McKenzie, M. (1999). *Effectiveness participatory practice. Family group conferencing in child protec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 Davidson-Arad, B., Englechin-Sega, D., & Wozner, Y. (2003). Short-term follow-up of children at risk: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life of children removed from home and children remaining at home. *Child Abuse & Neglect*, 27, 733-750.
- Dubois, B., & Miley, K.K. (1999). *Social work: An empowering profession*.

-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Epps, S., & Jackson, B. J. (2000). *Empowered families, successful childre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what wor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mbrill, E., Sholonsky, A. (2001). The need for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systems in child welf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3(1), 79-107.
- Houston, S., & Griffiths, H. (2000). Reflecting on risk in child protection : Is it time for a shift in paradigm.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5, 3-20.
- Jack, G. (2001).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 P. Foley., J. Roche, & S. Tucker (Eds.), *Children in society. Contemporary theory, policy and practice* (pp. 185-195). New York: Palgrav.
- Lee, J. A. B. (2001). *The empowerment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Building the beloved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ose, S. M. (2000). Reflections on empowerment-based practice. *Social Work*, 45(5), 403-412.
- Scourfield, J. (2003). *Gender and child protection*, New York: Palgrave.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Turnell, A., & Edwards, S. (1999). *Signs of safety: A solution and safety oriented approach to child protection*. New York: W.W.Norton & Company.